

사설

‘한벌 누더기’ 가르침 되새기자

— 성철스님 2주기를 맞아

심기가 불안하고 뉴스가 두렵다. 이세상이 어찌된 이렇게 대형 사고와 악덕비리가 판을 치게 되었을까. 하늘을 닮아야 할까. 조상을 닮아야 할까. 아니다. 아무나 할수 있다는 정치 탓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인간의 뒷자리에 있던 최고 통치자도 그럴진대 어떤 지도자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남음이 정치가나 정치지망생은 진실로 합쳐야 한다.

청렴과 검소로 살아가신 성철스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때마침 12일이 슨 2주기가. 스님의 유래와 같은 강직한 사자후가 한번 올랐으면 한다.

성철스님은 불교계 최고지존의 자리에 계실 때보다 입적하시며 더욱 밝은 빛을 비추셨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광명을 주셨다.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모습에 남기신 것은 꿩고개 꿩고개 실망한 남은 현 누더기와 걸정 고승신 그리고 몇년을 말하며 쓰던 이시시개... 우리는 스님의 뒷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체체를 살펴보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스님께서 가신 뒤 조계종은 한반도 1600년 불교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혁을 일으켰다. 아직도 그때의 합성을 들은 시민들은 조계종의 모습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지인사에 뒷거래가 있고 돈문제로 구속되는 소리가 들리니 개혁의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해악의 습과 관행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진정 개혁 종단의 종화라면 차제에 철저히 규명하여 청정승가의 위상구현에 더욱 힘기하여야 할 것이며 썩은 관행을 도려내어 사회를 계도하는 수행자로서 몇몇하게 참된 면모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번 성철스님의 2주기를 맞아 문도회가 중심이 돼 스님께서 평소

시던 삶의 자세를 정리하여 ‘첫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둘째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셋째 남 모르게 남을 돕읍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어걸고 7일 7야에 걸쳐 8만4천명의 참회기도를 했다.

또 ‘성철스님 불교학술상 및 논문상’을 제정하여 불교학 및 선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 스님 생존시에 시작했던 역경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선사의 일반화, 대중화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스님 가신 후 잊혀져 갈 뻔했던 스님의 교화사상을 실현한다 생각하니 참으로 수희동참해야 할 일이다.

빈 손으로 오셨다가 빈 손으로 가시면서도 엄숙한 뒤에 남기신 따스한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거울삼아 불복의 비리에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게 비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노 전대통령처럼 만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자, 아니 어떤 한 증생, 한 물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한벌의 누더기, 검정고무신과 이시시개도 던지고 간 성철스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벌의 누더기, 검정고무신과 이시시개도 던지고 간 성철스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반야경의 무소유를 실천하여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통치자도 정치인도 행정가와 기업가도 그리고 종교가들조차도 무일푼의 시인과 더불어 사는 한 표 가진 국민일 따름이다. 특권의식, 욕심을 버리고 한 마음 활활 털어 놓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로 태평자를 한 곡조 불러 부단한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서로 열릴 것이며 사회는 굳이 윤리와 도덕을 거론치 않아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열린 마당

조계종 법인관리법

선학원 문제로 제정이 서둘러진 조계종 법인관리법이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11월 9일 현재) 점점 늘어나는 각종 법인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중반이 필요하다는 종단측과 자치규제만 받는 비민주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는 일부 법인측의 논란이 가중돼 왔다.

다는 일부 법인측의 논란이 가중돼 왔다. 더구나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권한부여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 비대에 대한 우려도 있어 왔다. 법인관리법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제정취지와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일면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리 통제만이 아니다. 종단에서 장려해야 할 법인도 많으므로 공조체제로서 종단과 법인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법인의 여러 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성운 (삼천사 주지)



할 주지를 역임한 사람이 삼보정재를 축재해서 법인을 설립한 일은 한 건도 없다고 본다. (축재해서 다른 곳으로 남비한 예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삼보정재 유실막고 지원·협조체제 마련

재단법인 선학원의 경우 뿌리는 조계종과 같이 하고 있고 선학원 소속 사찰중에도 조계종 명의를 쓰고 있는 곳이 많으나 실상 조계종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가 관여하고 있거나 조계종의 재산이 출연돼 형성된 법인임에도 사실이 지내면 종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종단과는 상관없이 운영, 관리되는 곳이 늘어가 있다. 그냥 두다가는 조계종은 헛겜기 종단이 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져 왔다.

법인관리법의 제정으로써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전 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종단 법적통제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

하게 각자의 반연에 의해 설립해서 어떻게 각종 복지나 포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법인관리법을 만든다는 말은 설득력·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법인관리법을 만든다고 해도 종단에 법인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당 이사회에서 관리행사를 할 뿐이다.)

그런데도 법인관리법으로 기존의 법인들을 묶으려는 것은 자칫 법인관리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을 것이다.

진실로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으려면 먼저 독살이식 재정관리를 탈피하고 (재정을 양명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아마 한두 개일 것이다) 사찰재정의 수입지출을 양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시론

盧씨 外道행차의 ‘뒤끝’

어느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나치스의 만행을 꼬집은 소설 연극 영화 등이 세계 각국에서 이미 천여편이나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만큼 더 나올 것이라 한다. 그런 평화를 유린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그 죄값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한 사례이다.

혹자는 말한다. 신문이 왜 추악한 일만 들추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세상이 온통 추악하기 하고...

하지만 요즘의 신문들은 노태우비자금 사건으로 범벅이다. 사건이 워낙 초 특급이라는 것, 거기가 자꾸만 새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노태우씨 관련기사로 범벅이 된 신문지 트트머리에 이봉철의사의 동상제막 소식이 보인다. 수류탄을 일본 천황 앞에 던지고 나면 어김없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양 의연했던 피غم은 젊은이 이봉철! 돈을 무작정 끊어 모으면 천세만세 행복하리라 믿었던 노태우씨!

스스로 불자(佛子)를 자처했던 노태우씨는 이제 오욕으로 분해된 진흙밭이 우리의 기성 이봉철 의사는 거기서 피어오른 연꽃(蓮華)이라고 비유한다면 지나친 수식일까!

지난 주 어느 방송국의 심야토크에서 주소를 대꾸하고 밝힌 시청자가 “전직 대통령이며 대 국민 사죄도 했으니만큼 이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 이런 도덕군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런 굳이 전대통령 전대통령 하며 이른바 전권예우를 해야 한다는 측과 함께 연민의 정이라 하겠다.

주인의 대갈일상이 낚임을 때렸다. ‘애들이 스산생님 나가신다. 신발 챙겨드려라’ 라는.

아름씨, 만사유재였다. 스씨의 촌극과 노태우씨의 다큐멘타리는 너무도 흡사하다 하겠다.

‘부패 공화국’ 이제 그만

노태우씨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날의 소리는 사건의 크기 만큼이나 요란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 공평을 시종 지켜보았다. 혹은 연민의 정으로 혹은 타산적으론 혹은 역사의 교훈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허망하였다. 어쨌거나 한때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체통으로 하여, 군자다운 골곧함이나 선비다운 기상이나 하도못한 장군다운 만용이라도 기대했던 한기닥의 비탈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비실비실 흐물흐물하는 작태라니... 시종잡매와 조곰도 다를 바 없었다.

노태우씨는 대도(大盜)의 자격마저 지니지 못했다. 큰도둑은 정보에 밝아야 하는 것이거늘, 스위스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언제까지나 그 비밀이 보장된다는 건 옛말이라는 것, 스위스의 은행들이 검은 돈을 은닉하여 악(惡)을 조장하는 비도덕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밀려서 요즘은 예금주의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줘야 한다는 것, 노태우씨와

그 측근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태우씨는 자꾸만 실수를 거듭하는 것 같다. 이웃 집에서 굶는 고기가 쇠기진지 돼지고기인지를 대변에 알아차리는 세상에, 70년대나 유능했던 수법으로 어디에 땅, 어디에 빌딩 하고 사모은 아둔함과 그걸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파렴치까지 저지르고 있다.

천봉우출이라 했다. 노태우씨가 방향을 바로잡아 호리도 남김없이 털어버리면 자신도 살고 그 가족과 측근도 살고 혼란한 나라도 수습한다는 이치를 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한 이사국으로 뽑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게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국민들은 ‘부패 공화국’으로 치부되는 부끄러움을 몸들 바를 모르고 있다. 물론 이번 노태우비자금 사건은 우리국민의 목은 의식과 관행을 탈바꿈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의 선진화와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사회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봉호 <해남신문 대표이사>

현대만평



이젠 방생작업만...

법인개요

단 등은 정관변경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인개요 단 등은 정관변경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인은 매년 3월이내 재산현황과 재산 변동사항을 소관 중앙종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범위 학교·공익·특수법인 포함 등록법인 해마다 재산현황등 보고

적용범위 학교·공익·특수법인 포함 등록법인 해마다 재산현황등 보고

두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두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법인관리위는 법인 운영현황 파악 및 문제점의 보완 지시, 사업추진법인의 종단등록요건 변경여부 파악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관할 법인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중앙종회 임원 후보 선출 및 대학회 재직임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종립학교관리법은 폐지된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어학교육 안내

가산회향회

—후원가족 임의 안내—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교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원 후원회원 ‘伽山廻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평등회향회원: 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회향하실 분
지혜회향회원: 가산상, 연구상, 학술상 등으로 자유로이 회향하실 분
자유회향회원: 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회향하실 분

이상의 후원회비는 三輪淨淨의 정신과 그 회비운영의 개방으로 佛性人間과 法性自然이 함께 하는 佛國土具現에 회향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본원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10년 예정) 구입시 특권을 드리며,
본원의 각종 교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정간물과 교화제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링이 되시어 본원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시거나
지로(7606753)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중들의 수행처 伽山巖窟은.....

- 불교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본래불성과 자원의 근본법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물 연 대중들의 경건수행처입니다.
본 법인은 사회의 난야화를 추구하는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난야(Āraṇyaka)란 인도 외계 정진하는 수행처를 이릅니다. 탐욕과 무지의 풍환을 떨쳐버리고 진리의 자유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난야가옥을 三學·三행선에 의거해 동방 지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 精進巖窟 / 戒學 불교사상교육 / 平等의 나눔(財布施)
禪定巖窟 / 定學 禪 實 修 / 自由의 나눔(無畏施)
智慧巖窟 / 慧學 불교전문교육 / 智慧의 나눔(法布施)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지면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96년도 1기 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 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Includes courses like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불교원전연구과정,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어학연수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Includes courses like 불교한문강독, 불어어학연습, 티벳어어학연습, 팔리어어학연습.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원소재)와 사진 2매 ■접수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접수일: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지관

도서출판 가산문고가 내는 책들은.....

- 伽山學報 창간호
伽山學報 제 2호
伽山學報 제 3호
伽山學報 제 4호(신간)
韓國佛敎文化思想史 (상·하)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1)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신간)
南北傳六部律藏 比較研究
伽山山 海印寺誌
信行日錄
信行日錄
增補 四集私記(신간)
要經序說(개정판)

서울시 중로구 동승동 192-10 (우당기남동 2층)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집부 745-1663 FAX 765-5673